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b>2021. 12. 22(수) 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작 성 과	영종청라기반과
담 당	과장 천준홍, 제3연륙교정책팀장 박춘곤, 담당 오영림(032-453-7622)

## **“희망 담은 2025발의 불꽃쇼…제3연륙교 건설 본격화”**

수많은 난제 뚫고 조성원가 반영 15년만에 1·2공구 본 공사 착공  
 3백대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져…2025년 개통되면 영종·청라 개발 크게 기여  
 박남춘 시장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차질 없는 개통에 최선”

- 오는 2025년 개통을 바라는 2025발의 불꽃 쇼와 함께 인천의 해묵은 난제였던 제3연륙교 건설이 본격화됐다.
- 이는 지난 2006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원을 영종·청라 토지 조성원가에 반영한지 15년만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우선 시공분인 3공구를 준공한 데 이어 22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청라호수공원에서 1·2공구에 대한 ‘제3연륙교 본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 착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집에서 행사도 즐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지 않으면서도 거주시설 인근 장소에서 메인 퍼포먼스인 드론 300대를 이용한 드론 라이트

쇼와 오는 2025년 개통을 희망하는 2025발의 불꽃쇼로 진행됐다. 또 최근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참석 인원을 줄이는 등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 아울러 비대면 참석이 가능토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 제3연륙교는 그동안 △사업 협약을 통한 사업비 부담 관련 LH·인천도시공사와의 합의(2020년 10월) △손실보전금 관련 국토교통부 및 민자 사업자와의 합의(2020년 12월) 등 수많은 난제 해결과 최근 1·2공구 기술제안 평가 및 반영설계(2021년 7월~11월)를 통해 착공에 이르렀다.
- 박남춘 시장은 “지난 해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던 그 날의 벅찬 마음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할 중심축이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어낼 ‘이음의 다리’”라며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전망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꼼꼼히 공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오는 2025년 개통이 목표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81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포함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돼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수도권 서부권

역의 균형발전(개발촉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7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